



## Monthly Customs Newsletter



### 【 대표관세사 인사말 】

설 명절도 끝나고 마지막 겨울을 녹이는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도 한-중 FTA가 가서명되는 등 FTA 및 관세동향과 관련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관세 및 통상에 관한 소식을 간추려서 보내드리니 업무에 조그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사 Newsletter에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내 주시면 귀담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3월.. 봄 새싹이 돌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기분 좋게 힘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 관세동향 】

### ▶ 2015년 유망 신흥시장은?

우리 기업이 생각하는 2015년 유망 신흥시장 1위로 베트남을 꼽았다.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의 Next BRICs로 불리는 ASEAN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한 '우리 기업이 뽑은 유망 신흥시장, 베트남' 보고서에서, 53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우리 기업은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국가의 시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1인당 GDP(구매력 기준) 1,500달러 이상, 인구 1,500만명 이상인 국가 중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를 제외한 32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진출계획을 물은 결과, 49.0%가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무역업계가 진출을 희망하는 상위 15위 국가에는 동아시아 7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미얀마), 유라시아 3개국(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2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남미 1개국(멕시코), 동유럽 1개국(폴란드),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등도 포함됐다.

상위 15위 국가의 1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지난해 기준 4,500달러며, 앞으로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젊은 인구(15~24세)의 비중이 25%~ 45%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는 내수 소비시장 겨냥(53.4%), 인접국 진출 허브(25.3%), 생산기지로의 활용(24.8%), FTA 활용(22.2%) 등을 꼽았고, 한류 활용, 현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시장 다변화 등의 답변도 눈에 띄었다.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연구원은 "시장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체결한 한-ASEAN FTA보다 더 강화된 양자 간 FTA의 타결 및 발효와 함께 중동지역 GCC(걸프협력회의)와의 FTA 추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 관세동향 】

### ▶ 해외 직구 인기 품목은?

관세청이 지난 5년간(2009년 1월~2014년 6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구 7,062만 건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 수입 건수·금액, 성장세 측면에서 소비자의 최대 관심 품목은 커피, 핸드백, 운동화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 건수는 2009년 220만 건에서 2013년 2,165만 건, 2014년 상반기 1,474만 건으로 연평균 60.0%씩 증가했으며, 수입 금액은 연평균 48.4%씩 증가했다. 참고로 목록통관 물품(1,345만 건)은 제외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총 137개국에서 수입되는데, 미국이 6,000만 건(85%), 1조 5,000억 원(72%)으로 최대 수입 대상국이며, 금액 기준으로 중국(11%), 독일(5%), 영국(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입 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비중이 높았고, 비교적 고가인 패션 제품, 유아용 제품의 수입이 많았다. 독일로부터는 유아용 식품, 화장품, 커피, 샴푸, 주방 가전, 시계, 가방 등을 주로 수입했으며, 중국에서는 운동화, 가방, 핸드백, 티셔츠 등 패션상품 및 의류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고, 뉴질랜드에서는 주로 건강기능식품, 꿀, 화장품, 치약 등을 수입하는 등 식품류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해외 직구 소비자는 수입건수·금액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했는데, 비타민류 등 영양제와 프로폴리스 함유 조제품을 가장 선호했다. 또한 건수 성장률 측면에서는 최근 수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퀴노아 등 곡물/종자를, 금액 성장률 측면에서 텔레비전 수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건수·금액, 건수 성장률, 금액 성장률 등 4개 분석지표를 점수로 환산해 소비자의 관심도를 종합해 측정한 결과, 커피가 3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핸드백(329.9점), 운동화(329.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 직구 및 역직구 현황 정보 등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병행수입 활성화, 해외 직구 편의 제고 등 소비자의 전략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고,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관세동향 】

###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우리나라는 몇 개나 될까?

2013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2011년 61개, 2012년 63개에서 소폭 증가한 6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4위, 12위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월 5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이 1,538개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보유하고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독일(2위, 733개), 미국(3위, 550개), 이탈리아(4위, 2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탱커 등 44개였으며, 2013년에 새로 진입한 품목은 에틸렌, 폴리카아보네이트, 의류 부속품 등 화학제품,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21개 품목이었다. 반면 2012년에는 1위였으나 2013년 그 자리를 내준 품목도 철강, 농·수산물 등 19개에 달했다.

품목별로 우리나라는 화학제품(21개), 철강(11개), 섬유제품(8개) 등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다수 배출한 가운데 최근 6년간 추세에서도 화학제품의 점유율 1위 품목수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수송기계, 전자기계, 농·수산물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품목 65개 중 점유율 2위를 차지한 국가는 중국(20개), 미국(10개), 일본(7개) 등으로 절반인 37개 품목에서 우리와 경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14개 품목이 5%대 이하의 점유율 차이를 보였으며, 중국이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는 모양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중국, 미국, 일본 3개국 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품목 124개에서 점유율 2~3위를 차지하며 경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수출시장에서의 1위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 수는 각각 372개, 84개로 순위는 전년과 같은 5위와 9위를 차지했다. 한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인 품목을 의미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5위 이내), 기술력,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과는 다른 개념이다.



## 【 관세동향 】

### ▶ 해외 골동품 자전거 무관세로 수입통관할 수 있을까?

최근 중국 도자기, 이탈리아 악기 등 해외 골동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세관에서 품목분류 시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정)으로 인정하는 물품의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통관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경우 '제작 후 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골동품의 무관세 통관 시에는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제작 후 100년이 넘은 물품이라도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은 골동품으로 분류하지 않아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한다.

서울세관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골동품으로 인정받아 자전거를 수입 통관한 화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올 1월 8일 한 수입화주는 국내 자전거 문화 증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자전거 박물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제작 후 100년이 지난 자전거 24대를 독일에서 구매 후 골동품으로 서울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보니 송품장에만 규격별로 제작연도가 기재돼 있고,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누락돼 입증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화주는 공신력 있는 독일 재외공관(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골동품임을 인정받았다.

결국 수입화주는 자전거 박물관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전거 24대 모두를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골동품으로 인정받아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수입 가격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았다.

한편 서울세관은 "고가인 수입제품을 세금이 없는 골동품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관세동향 】

### ▶ 마약 밀수, 갈수록 대형화·조직화... 10대 청소년 밀수도 급증

마약 밀수가 갈수록 늘면서 수법도 조직화·대형화하고,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 마약 밀수와 10대 청소년의 마약 밀수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8건, 71.7kg, 시가 1,5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이는 2013년보다 건수 21%, 중량 54%, 금액 62%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kg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이 17.3kg(167건), 대마가 2.7kg(66건) 순이다. 지난해 마약류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국제범죄조직에 따른 필로폰 밀수가 대형화하고 마약류 공급선이 다변화해 밀수 조직이 개입한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는 총 8건(47.8kg)으로 필로폰 전체 압수량의 94%를 차지했다. 실제로 중국, 홍콩 등 중국 동남부 지역이 필로폰 주요 공급지로 급부상하고, 멕시코발(發) 대형 밀수(15kg, 454억원)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또한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 마약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소비 목적으로 신종 마약을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류 밀수 사범이 급증했는데, 이는 최근 청소년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합법을 가장한 광고에 현혹되거나 호기심에 신종 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범죄조직의 필로폰 밀수와 개인소비용 신종 마약 밀반입을 공항, 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1월 6일 인천공항에 신설된 마약조사관실을 통해 국제우편,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신종 마약 밀반입을 막고 통제배달 수사를 강화해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의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공항과 항만을 통한 우회밀수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계밀수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해공항에 마약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방 공항·항만 마약 단속체계도 계속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우범 화물 밀수유형 분석·선별 등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수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탐지견, 엑스레이(X-ray)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검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신종 마약류 확산추세에 대응해 세계관세기구(WCO)와 합동으로 '글로벌 신종 마약 합동단속작전'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 관세동향 】

### ▶ 이젠 '1,000만원 이상' 관세도 신용카드로!

정부는 '1,000만원 이하'였던 기존의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관세 납부한도액을 폐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견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 부품 중 분무건조기 등 23개 품목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먼저 그동안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없었던 관세 납부한도액을 없애고, 1,000만원을 넘는 관세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일시 자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6개월 안에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관세경감액 범위도 넓어졌다. 매매계약상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 중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고장이 발생해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경감액에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을 현행 39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분무건조기, 밀 볶음기, 인쇄기, 레이저 마킹기, 액체식 제습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했다.

한편 휴대품을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가산세(60%)를 중과(重課)하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내에서 세금을 30% 경감한다. 상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는 과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 받은 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적용한다.





## [ 관세동향 ]

### ▶ 질의응답사례

#### ☞ 인터넷 쇼핑몰 구매 후 일부 미배송에 따른 환불시 관부가세 환급

**질의 :**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구성품을 전부 보내지 않아 일부 금액은 환불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을 총 201달러에 구매해서 관세·부가세를 납부했는데, 10달러 이상 환불받기로 했으므로 약 185~190달러에 구입한 셈이 됩니다. 카드 결제액인 201달러에서 환불액을 빼면 결제액도 185달러 정도가 되니 관세·부가세 역시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부가세의 환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관세법」 제16조(과세물품 확정 시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 당시 실제 물품의 수량이 부족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했다면 부족분에 대한 관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본 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이미 반출된 상황이라 애초 수입신고된 수량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량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정확한 송품장, 운송서류, 수입자 검수보고서 등)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사항정정신청서'를 관세청 통관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FTA 뉴스 ]

### ▶ '개방형 협업'으로 한·중 FTA 효과 UP!

KOTRA는 2월 3일 베이징 신축 포스코센터에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자체 및 수출 초보기업 20여개社를 입주시켜 더욱 업그레이드된 중국진출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

전 중국지역 무역관장 19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KOTRA는 한·중 FTA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개방형 협업, ▲FTA 경제협력 범위 활용, ▲내수시장을 위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 ▲쌍방향 기술 및 자본 교류라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KOTRA는 1분기 내 베이징, 청두 등 연내 네 곳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무역협회의 '차이나 데스크'와 연계 운영할 예정이며, 4월에는 중국 바이어 300개社를 국내로 초청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인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의 소비재 분야에서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등에 뒤진 5위에 그치고 있는데, KOTRA는 소비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알리바바, 리앤화와 같은 대규모 기업에 제품을 입점하도록 지원하고, 유니온페이(Union Pay) 등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국제 송금을 지원한다.

나아가 우한, 내몽고 등 내륙지역에서 우수상품전을 개최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에 우리 소비재가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부동산에 쏠리는 중국 자본을 양국 산업에 유리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투자환경 설명회(IR)를 연 2~3회 개최하고, 자동차, 가전, 전자 분야의 중국 글로벌 기업 150여개社와 우리 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와 중국에서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KOTRA는 "한·중 수교 이전부터 중국에 진출해 국내 최대의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며 對중 수출 및 중국자본 유치 알선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한·중 FTA가 수교 이후 중국 진출의 두 번째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KOTRA 김재홍 사장은 "최근 중국시장은 양적 팽창을 거쳐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양질 전환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 와중에 한·중 FTA 시대가 도래한 것은 우리 기업에 또 다른 위기가자 기회"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재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FTA 뉴스 ]

### ▶ 한·중 FTA 가서명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우리나라와 중국이 2월 25일 FTA에 가서명했다. 그동안 양국은 서울과 베이징, 도쿄에서 네 차례 기술협약과 세 차례 법률검토 회의를 열었으며,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7차 RCEP 협상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2월 25일 오전 외교 경로로 가서명한 협정문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을 2월 25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http://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으며, 한글본은 번역과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양국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중국은 품목 수의 71%인 5,846개 품목, 수입액의 66%인 1,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며, 품목 수 91%인 7,428개 품목, 수입액의 85%인 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한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품목 수의 79%인 9,690개 품목, 수입액의 77%인 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고, 품목 수 92%인 1만 1,272개 품목, 수입액의 91%인 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한다.

산업부는 한·중 FTA 관세 철폐의 원칙은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이라며, 협정 발효일 즉시 1년 차 관세 인하를 적용하고, 차년도 1월 1일에 2년 차 추가 인하를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은 교역구조와 이미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특혜관세 신청 절차상 특례를 통해 對중 수출입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한·중 FTA의 경제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도록 對중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AEO 뉴스 ]

▶ **까다로운 멕시코 통관절차, AEO MRA로 뚫는다**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지난해 3월 체결한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월 16일부터 전면 이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한·멕시코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앞으로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AEO 업체가 멕시코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 번호(Tax ID)'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멕시코 수입자나 관세사는 이 정보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만 한다.

관세청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약정 이행으로 對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AEO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 【 품목분류 】

### ▶ 반려동물 서비스 고급화

오메가 3, 연어 육포, 닭 가슴살 육포, 오리 안심 육포, 소간 파우더 등 고급 식재료로 만든 최고급 요리가 잘 팔리고 있다. 면역력 증강과 해충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용 생수는 1.8ℓ 한 병이 8,000원~1만원에 팔린다. 이것은 부유층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매년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료가 그렇다는 것이다. 고령화, 핵가족화, 출산기피 현상 등에 따른 외로움을 반려동물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따른 것이다.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값이 쌀값보다 비싸고, 고급화 추세에 따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미용 등 서비스 가격도 지역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이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장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폭발적인 성장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소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개 심리학자와 행동 전문가가 개의 취향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들의, 개들에 의한, 개들을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을 수입해 방송하는 도그 TV가 있다. 이 방송은 시작한지 반년 만에 7,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했다고 한다.

관세율표에서는 가공의 것으로 동물 전용의 것, 즉 가공 사료는 일반적으로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에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 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것,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료용이라도 단미사료는 성분 재질별로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곡물의 짙은 제1213호에, 사료용 뿌리채소와 같은 사료용 식물(예 : 알팔파)은 제1214호(펠릿 여부 불문)에 분류된다.



##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mailto:newsletter@cwcustoms.co.kr)